



CONTENTS

01 광화문광장, 행사 다양하지만 ‘특색은 없어’

- 1_광장행사, 2009년 개장 후 10배 이상 증가
- 2_2014년부터 격주로 보행전용거리도 운영
- 3_연간 100개 넘는 행사, 광장 정체성 못 살려

02 광장, 만족도 높지만 운영개선 요구도 많아

- 1_시민들 “일상적 활동 보장 등 운영방식 손질”
- 2_보행전용거리, 만족도 높지만 개선과제도 많아
- 3_광장행사,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 못 줘

03 운영원칙 등에서 본보기 되는 해외 대표광장

- 1_베를린 운터덴린덴: 일상적 이용 속 특색 있는 행사 운영
- 2_프라하 바츨라프 광장: 지역협회가 풍성한 문화축제 기획
- 3_도쿄 교코도오리와 나카도오리: 지역상가와 함께 도시축제 개최
- 4_도쿄 긴자 보행자천국: 상업중심가에서 만끽하는 ‘걷는 즐거움’

04 광장 이용 활성화 위한 다각적 해법 필요

- 1_시민 관점의 광장 운영원칙·기본적 이용규정 마련
 - 2_광장 정체성 살리는 행사 중심으로 ‘선택과 집중’
 - 3_시민의 주체적 참여 확대·다양한 즐길거리 제공
- 